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5.3(화)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 형 주(02-2156-9870)		담 당 자	김 동 현 사무관 (02-2156-9874)	

제 목 : ‘16.5.3일 한국경제신문 중 “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줄속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만 기승” 관련

<보도내용>

- ☐ 한국경제신문(2016.5.3. 조간)은 “경제계 스튜어드십 코드 줄속 도입하면 연금사회주의만 기승” 제하의 기사 에서
 -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인 기업은 물론 직접적 가입 대상인 연기금,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,
 - 경제계에서는 업계 의견수렴을 전혀 안해 경영 자율·책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고, 투자업계에서도 강제규범이 아니라지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보도

<참고사항>

- 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하여, 현재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, 상장협, 전경련 등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 진행중임
- ☐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정에서,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,
 -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주주권 행사를 통한 투자자 권리 보호와 기업경영상 부담 최소화 요구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임

- 또한, 기업대상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며,
 - 스튜어드십코드 시행방식도 정부주도의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업계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
- ☐ 참고로, 최근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 시기를 완화하는 등 업계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마련·시행중임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넓게 들었습니다
 빠르게 알려졌습니다